

# 의문문 짓기와 그 오류에 대하여

박 정 길

## “SOME CONSIDERATIONS: FRAMING QUESTIONS AND THEIR ERRORS”

*Park, Jeong-Kil*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II. 1) Question에 대하여

2) Error 분석에 대하여

3) Question 짓기에 나타난 error의 분류

4) 자료의 평가

III. 결 론

—references—

### Abstract

Oral Question-and-Answer work is widely used technique in English Teaching. Though it is, yet it is not always, I believe, employed in a most effective manner on the teaching process. To acquire a balanced command of English and the confidence to use it as an actual means of communication, the student needs practice in asking a wide variety of Questions as well as in answering them since it involves thinking of what is to be said while saying what has been thought.

In this paper “Some considerations: Framing Questions and Their Errors”, I have touched on the following two-fold aspects Concerned with that matter;

First, I tried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a few characteristics of Ques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converting some declarative sentences into the Interrogative statements with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which may serve many purposes to the teaching language if skillfully used.

Second, I've discussed on general purposes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which involved in an error analysis, and I investigated mainly to the errors of addition, omission, substitution, and ordering that are classified errors' categories.

In short, I brought 10 declarative sentences from Lewis' paper and used them in the tests to find out which ones could be transformed more easily into the Questions by my students, and I examined(into) what sorts of errors are the immediate causes of the negative transf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obtained more detailed results such as types, number, and distribution of errors. General conclusions which I have encountered from this study are; the majority of the errors are caused by the form of the verbs incorporated in the given sentences, particularly tense, aspect, the presence/absence of modals, and the substitution of *Do* for *Be*. I've liste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each type of error at the end of this paper.

## I. 서 론

1) 언어 교수의 일반적 목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등의 4기능을 고르게 갖추게 하는 것이 외국어 교수의 목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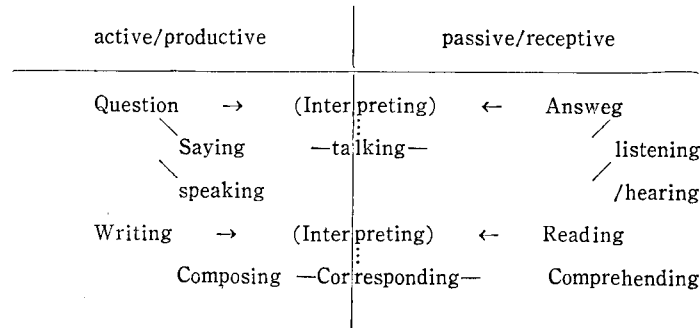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4기능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특색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은 widdowson이 아닌가 한다. 그는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에서 productive/active와 receptive/passive의 기준에서 언어 교수의 4가지 목표를 그림<sup>1)</sup>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productive/active	receptive/passive
aural medium	speaking	listening
visual medium	writing	reading

1)

무릇 speaking, listening, writing, reading, 모두가 학습자의 처지에서 보면 어느것 하나 능동적인 측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기능을 discourse라는 측면에서 서서 Communicative ability를 진작시키기 위한 학습과정상의 노력으로 그 성격을 생각해 보면, speaking과 writing은 listening이나 reading이 갖는 성격에 비해 능동적인 표출행위라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후자는 수동적이고 수용적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학습현장에서 이뤄지는 Question=answer도 이상의 등식으로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능동적 분야의 효과적인 강화내지 활용이 언어 교수의 학습과정에서 바람직 하다고 본다.



1) Widdowson :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57.

사실, 교수 과정상 Question은 topic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정도나 교수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 주는데 기여한다. 더우기 제2 외국어의 언어 기능을 신장 시키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Question & Answer Pattern이 널리 선호되고 있음은 능동적인 요인을 가장 많이 포함한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게 된 교수기법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Question이 갖는 성격이 적절한 답변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우선되는 description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Question에 따르는 훌륭한 answer의 반응을 교수가 얻어 낼 수 있고 학습자가 표출해 낼 수 있다면 어학 실험실의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소망스러운 성과는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를 중심으로 한 *Chronology development of child Language*를 보면 언어 습득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데<sup>2)</sup> 그것은, 대체로 6—8세에서 understanding part에서는 일상의 대화나 수동적인 어휘증식이 이뤄지고 글도 읽을 수 있으며 utterance part에서는 모국어에 대한 speech habit가 일차적으로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단 학습된 pattern은 practice를 통하여 speech habit를 강화하기만 하면 언어 습득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상의 목표에 도달한 어린이 모두가 3세를 전후로 하여 언어 습득상 매우 중요한 능동적인 중간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나타난 행위에 있다.

즉 utterance part에서는 어휘의 증대, 말의 구조에 대한 내성화, 시제, 수, 품사 및 잡다한 pattern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가 하면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호기심에 찬 Question을 던졌다는 것이고, understanding part에서는 지난 일에 대한 Question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른다는 것이다.

모국어자가 아닌 제2 외국어 화자의 언어 습득은 이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청취 이해도의 수준<sup>3)</sup>을 고려한다면 —모국어자가 구사하는 이 정도의 언어 수준을 자의적으로 연합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기대는 다소 무리라 하더라도— tape에 수록된 reading comprehension의 topic을 능히 이해하고, 표현할 요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단계에는 이미 그것도 충분히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언어 실험실의 학습과정에서 이해된 Contents를 두고 Conversion을 통한 상호간의 대화를 유도해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Question의 Answer에도 상당한 error가 나타나고 있고 주어진 내용의 Interrogative sentence 화에서도 적극적 전이(positive transfer) 능력이 매우 쳐져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Question의 접근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보았다.

ii) 그래서 필자는 우선 교수기술에 있어서 Question이 지니는 유형과 오류분석의 의의를 대강하고 기초적 문법 특성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리 학습자들이 특정형식의 발화를 신장해 나가도록 교육받는 언어 실험실의 학습과정에서 주어진 긍정문의 의문문화를 통하여 자기 표현의 선택상 어떤 류형의 조작에 부정적 전이현상이 가장 현저한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2) W. F. Mackey : Language Teaching Analysis. , London. 1965 p.106.

3) W. Rivers :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p.51—154.

본 연구를 위하여 tense와 관례된 10개의 긍정문을 Model로 사용하였는데 본래 이 10개의 긍정문은 영어와 언어체계가 다른 'native speakers of Arabic' 학생을 대상으로 The university of Jordan에서 Lewis mukattash 교수가 yes/No Questions과 Contrastive Analysis를 통하여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자국어(Arabic)의 방해에 대하여 연구할 때 사용한 설문이다.

필자가 본 연구에서 이 문항을 차용한 이유는 Paulston/Bruder의 MMC-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f<sup>1)</sup> language aquisition process에 근거하여 관찰컨테이 문항이 우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전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정적 전이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연구자 하는 필자의 기대에 유용한 Model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1981年 9월과 10월에 실시했으며 사용된 Model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simple present (Non-couplar)
- 2) Modal+v (can ride)
- 3) Present Perfect progress
- 4) simple past
- 5) present perfect
- 6) present progressive
- 7) simple past
- 8) simple present
- 9) Modal+perfective (Could have made)
- 10) past progressive

of; paulston/Bruder : Teaching English as a 2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Withrop, 1976. cambridge, Mass. pp.47-54.

### 1) Question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Question이 지니는 의의는 크다. 대체로 많은 교재에서 topic의 Compehension이나 Drill을 위한 Question & Arnsver pattern을 표출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반복연습을 하도록 배려되고 있음도 학습 매체로서의 Question이 갖는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인 반복 연습은 결과적으로 교수에게는 기대 이하의 반응이, 학습자에게는 참가자로서의 자긍심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Question을 framing함에 있어서 Question의 일반적 성격을 다각도로 참고한다 함은 곧 이와 대응하는 Answer와 더불어 speaking ability의 신장에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수효과면의 요소적 전체가 된다고 하겠다.

우선 Question을 framing함에 있어서 영어에 포함된 의문문의 전달기능을 알고 다음으로 어떤 답을 예상하느냐에 따라 그 부류를 가르치는 일이 좋을 것 같다.

요약하면

- 1) 의문문은 통사론적 기능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겠다.<sup>4)</sup>

4) Quirk/Greenbaum :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 한신文化史 역본, 박근우, pp.237-238.

- a) 조작용어가 주어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다.  
*will john speak to the boss today?*
  - b) 의문사 또는 wh-語가 문두에 놓이는 것이다.  
*who will you speak to?*
  - c) 상승조로 된 음조의 것이다.  
*you will speak to the boss?*
- 2) 예상하는 답에 따라 그 부류를 갈라보면 의문문의 부류는 이러하다.
- a) 확인이나 부정만을 예상하는 yes/No 의문문.
  - b) 한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답을 예상하는 wh- 의문문.
  - c) 물음에 있는 두가지 이상중 하나의 답을 예상하는 선택 의문문 등이 그것이다.
- a) Have you finished the book?
  - b) What is your name? How are you?
  - c) would you like to go for a *walk* or Stay at *Home*?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procedures에서 Question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이것이 갖는 내면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겠다.<sup>5)</sup>

- a, recall과 memory를 요구하는 지식적 질문(thought Question)
- b, Question 자체의 구조적 형태가 clear, brief, definite한 배열
- c, 학습자의 능력이나 경험에 적절하고 하나의 Idea에 국한된 질문일 필요성.
- d, 제격인 영어 표현에다 교육적 효과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 등으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procedure에 따라 topic에만 집착된 질문에서 점차 벗어나는 면도 고려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a)의 경우 제2 외국어 화자인 우리로서는 순수한 기억의 재생을 통한 지나친 'thought Question, 보다는 memory Question의 입장에서 topic에 대한 단기적인 반복 Drill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국어자가 아닌 점도 있지만 thought Question의 무리한 질문의 구성과 응답 요구는 현실적으로 native speakers의 Linguistics Competence를 따라 갈 배경이 없어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Sociolinguistic의 Communicative Competence 진작을 위한 제반요소적 측면에서 memory Question을 forging 함으로서 점진적으로 thought Question에 접근함이 더 유용하리라고 본다.

Sociolinguistics의 discourse라는 측면에서 Widdowson은 다음 4가지의 Question form을 제시하고 있다.cf.)

- A. wh-Question B. polar-Question C. Truth-assessment D. Multiple-choice가 그것인데 내용인즉 A, B는 아방이 묻고 타방이 대답하는 정상적인 대화라는 점에서 C, D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C, D는 그가 얻은 지식을 표방하는 어떤 사실의 내심적 진술이란 점에서 A, B와 다르다고 규정한다.

5) risk :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eaching. American Book Company. New york 1941. pp.515--518.  
cf2) Ibid : I, pp.95--110.

따라서 A와 B가 지향하는 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응답이거나 외부 지향적 질문이라면 C, D는 내심적, 정신적 응답에 겨냥된 내부 지향적인 물음이다. 환언하면 A와 B는 언어 표출에 대한 학습자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일언 명백한 응답을 필요로 하는 Question이지만 D.P.는 speaking ability를 늘이는 표출상의 효과는 적다 하더라도 내심의 추상적 정보를 형상해 내는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C, D가 A, B와 같은 부담을 학습자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Discourse의 측면에서 보면 역시 A, B. form이 더 권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types of Question이라 하겠는데, Norris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의 Question type을 제시하고 있다.<sup>6)</sup>

Type I.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Question 그 자체에 포함된 Question.

i) Answerable simply; yes/No or true/false

Before Frank left for town, did his wife hand him an umbrella?

(yes or No)?

Before Frank left for town, his wife handed him an umbrella.

(True or false)

ii) Multiple choice of answer is given with the Question.

what did frank's wife hand him before he left?

\_\_\_\_\_ an umbrella, \_\_\_\_\_ a piece of cloth, \_\_\_\_\_ a letter.

Type II. 정보를 직접 인용하여 얻을 수 있는 답의 Question.

(wh-Question 으로 who, when, where, what)

—usually not' why, or 'how, Question—

what did frank's wife hand him before he left for town?

Answer : (she handed him) a piece of cloth (before he left for town)

Type III. Reading selection에서 얻은 정보로 할 수 있는 답으로 한 문장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닌 Question.

—usually how, why Question—

How did Frank explain his difficulties to his wife?

Answer : First, Frank told her...then he said...

Type IV. Reading을 통하여 추리 또는 연루된 것을 감지하여 할 수 있는 대답으로 Reading selection에서 세세히 기록안된 정보에서 추출이 요구되는 Question.

How do you suppose Frank's wife felt about his explanation?

Answer : well, since she looked cross, I suppose that she...

Type V. 학습자에게 지식이나 경험을 덧붙여 주기 위한 노력으로 Reading section에 관련된 평

6) W. Norris : "Teaching Second Language Reading at the Advanced Level : Goals Techniques, and Procedures" TESOL Quarterly 4, no. 1 (March 1970) : 28—29. Teaching English as a 2nd Language, Paulston/Bruder 1976. Cambridge, Mass. pp.165—166.



가나 판단을 요구하는 Question.

what would you have done in frank's place ?

그런데 type 4)와 type 5)는 특히 교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런 유형의 Question이 취급된 교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자주 부연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교재구성도 after Question과 before Question이 동시에 이뤄 질 수 있는 것이면 더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런 점도 청취단계나 이해단계 등의 수준을 고려해야 할 터임으로 일괄적으로 장단을 가리기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서언에서 언급했듯이 청취 이해도의 단계에 충분히 들어섰다고 믿어지는 우리 학습자들에게는 학습현장에 오기전에 이미 type 5)의 Question에 대한 응답은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procedure에서도

1. 'a thought reading of the content, 를 유도하고
2. 'students' reaction after reading, 을 관찰하여
3. 'The individual's efforts and his performance on some topics, 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배려를 강화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시초부터 whom did he meet ? what did he say to the girl ? 등의 wh-form으로 after Question을 던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교수 노력은 Comprehension을 위한 reading을 했다기 보다는 Exercise를 대답하기 위한 short-term 만을 단순히 추출하려는 잘못된 습벽을 학생들에게서 배제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유형은 학습자에게 교수와 학습자간의 심리적 친밀감을 조장해 주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에서 자극이 가해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type 4)와 type 5)의 Question은 권장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why didn't you like her ? 라던가 Was mr. kim's girl friend a nice person ? 처럼 예상외로 간단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특히 짧은 시간에 주어진 topic에 대한 Contents의 Comprehension에도 도움이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의 rapid verification에 안정된 여유를 줄 수 있다고 본다.

## 2) Error 분석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습득 과정은 일면 근본적으로 오류를 생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수, 판단미숙, 계산착오, 결점이 많은 가정이나 추리 등은 언어 기능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면이기도 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은 곧 오류에 의해 성취 강화되고 오류를 이용한 feedback 효과는 desired goal에 보다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다분히 행동주의 심리학과 관련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모국어자의 한정된 언어체계에서 범하는 시행착오와 제2 외국어 화자가 언어습득 과정에서 범하는 시행착오는 성격상 환경적 배경이 사뭇 달라서 본래의 시행착오가 의미하는 본질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제2 외국어 학습자가 시행착오에 의해서 더 잘 배운다는 가설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본다. 가령 이러한 주장이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되고 다반사로 행하여 진다면 언어습득 과정(the process of acquisition)에서 오는 혼란은 클 것이고, 실사 오류를 범하지 않았거나 혹은 오류를 범한 곳에서 feedback 효과를 노려 다양한 형태의 언어체계를 계속 강화습득 시킨다 치더라도 모국어의 방해나 외국어 습득에 혼돈을 초래한다는 것이 선학들의 견해도 경험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시행착오에 의해 언어습득이 더 용이하게 강화된다는 효과를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언어에 관한 한 —그것이 모국어이든 제2 외국어이든 간에, 또 능숙한 화자건, 초보적인 학습자 건간에 어떤 기준을 두고 언어의 성격을 순전히 범주화하여 습득상 잇점을 확연히 규명하기란 어렵다는 것은 지론이다.

performance의 기준에서 보면 그 표현이 probable이나 improbable이나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Competence의 기준에서 보면 possible이나 impossible이나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acceptability의 문제에서도 grammaticallness와 연루된 acceptable difficulties의 문제점들로 하여 언어 자체의 unstable한 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어떤 유형의 형태이든 간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형성하는 발화행위에서 오류를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a faulty assumption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제2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도 유용하다 할 수 있다.

Corder는 새로운 언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예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오류가 제2 외국어 습득과정에 대한 이해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오류 분석 연구의 가치를 이렇게 들었다.

“A learner’s errors...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ovide to the researcher evidence of how language is learned or aquired, what strategies or procedures the learners employing in the discovery of the language”.<sup>7)</sup>

그러나 인간의 언어행위가 명백한 발화행위에 의해서도 들어나지만 비언어 행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류분석을 위한 직접적인 관찰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처지로는 말할 때 보다는 씌어졌을 때 학습자가 내재하고 있는 언어체계를 보다 분명히 관찰할 수 있을 터이므로 전자보다는 후자를 학습과정에서 관찰하는 것이 분석에 더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언어학자들은 적정의 대화에서 오류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mistakes와 errors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mistakes와 errors는 이처럼 다르다는 것이다.

**Mistakes;** “A mistake refers to a performance error that is either a random guess or a “slip”, in that it is a failure to utilize a known system correctly”

**Errors;** “An error...for which no blame is implied.” put in another way, “an error is a noticeable deviation from the adult grammar of a native speaker, reflecting the interlanguage competence of the learner.”<sup>8)</sup>

7) H. D. Brown :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164.



그런데 우리의 경우 mistakes란에서 보면 lapse, slip 따위는 말의 표출 과정에서 언어 능력의 현저한 결핍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표출행위의 불완전성에 관련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errors에서 보면 가령 다음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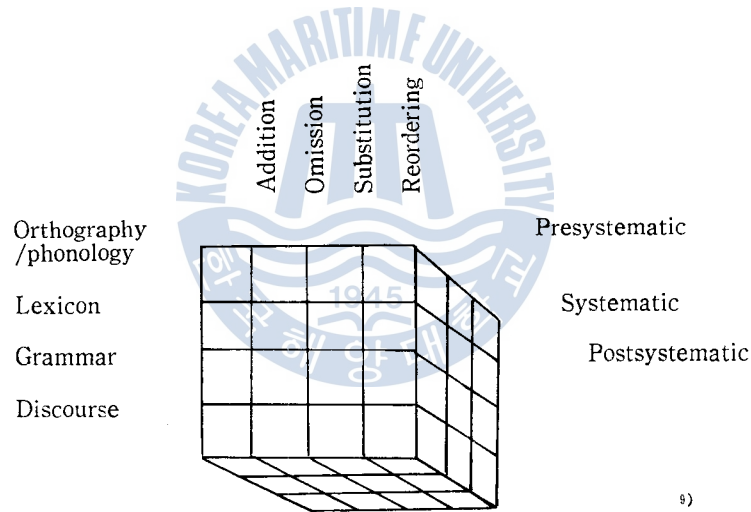
John can sing → a) \* Does John can sing ?

b) Can john sing ?

으로 b)가 아닌 a)의 경우로 나타났을 때 이는 학습자가 모든 Question form에서는 Do가 pre-posed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것은 목표언어의 언어능력에 현저한 일탈로 간주할 수 있을 터이므로 우리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유형은 mistakes라기 보다는 errors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오류의 범주인데 그들은 오류의 범위를 4개의 Linguistics categories, 3개의 stages 및 대별된 4개의 오류분석 범주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모두 48개의 각기 다른 오류의 범주로 세분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2 외국어의 습득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근거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며 우리 학생들이 발하는 몇가지 오류를 가지고 전체적인 Competence를 측정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음으로 일반적인 학습과 관련된 기본적 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를, 예컨대

Addition에 의한 오류

Omission에 의한 오류

Substitution에 의한 오류

Ordering에 의한 오류

8) Ibid, 7) p.165.

9) Ibid, 7) p.172.

등을 찾는데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오류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이론적이고도 실제적인 고려점은 무엇일까? 를 들 수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하여 SK. SHARMA<sup>10)</sup>는 매우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1. 외부의 조력으로 능히 교정할 수 있는 mistakes와 errors의 규정인데 이런 점은 언어 지식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관심을 펼 필요가 있다.

2. 오래전에 확립된 전통순법의 'rules'을 어겼으나 토박이 화자가 광범하게 수용하고 있는 문형의 문제. 즉

He is taller than I.

I want a sheet of paper to write on.

who do you want to see ?

등에서 볼 수 있는 문법성과 표현상의 잉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3. Standard와 Substandard에 대한 사전지식과 dialectal variation을 숙지할 필요성(이 점은 영어가 formal affair인 나라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아니나 우리에게겐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

4. Diagonic test의 구성과 계획이 요구된다.

5. 습득의 효과를 광범하게 결정하는데 이로우 Test에의 참가자 선정

6. Tabulation of Errors의 단계

7. Errors의 Classification

8. Errors의 Source 추적과 학습에의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이상으로 Question의 의의에 대한 교수론적 측면과 오류분석의 원리적 측면을 대강하였다. 본란에서는 Bruder가 제시한 process를 통해 볼 때 Speech Competence의 진작에 기초가 되며 학습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tense와 관련된 10개 문항의 declarative Sentence를 Model로 하여 우리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세분하고자 한다.

작업에 앞서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의사소통의 원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취하는 것은 외국어 수업의 능동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error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language-proficiency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였다. 그것은 error의 data를 tabulation하는 것 만큼이나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이해의 진전이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진 긍정문의 의문문화에 앞서서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거나도 빠짐없이 번역을 함으로서 특정 문항의 framing Question을 회피하지 않도록 아울러 유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학습자가 내재하고 있는 Competence의 건전하고도 총체적인 performance의 data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He Knows the answer.

10) forum 1981. July pp. 21—25.

2. The children can ride a bicycle.
3. The teacher has been Looking at their notebook.
4. The weather was terrible.
5. They have never gone to a restaurant.
6. They are constantly talking in class.
7. The girl knew many languages.
8. The house is almost built.
9. Her mother could have made a mistake.
10. Jinho was eating an apple when they came.

아래의 chart는 오류의 유형과 그 예시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숫자로 표기하여 통계 처리를 해본 것이다.

3) Question 짓기에 나타난 error의 분류

1. He knows the answer.

st. type of error	example	No.	%
Be replacing Do	Is he know the answer ? Is he knows the answer ? Is he knew the answer ? Was he knew (s) the answer ? Was he knew the answer ?	15	
Verbal form /concord	Does he knew the answer ? Does he knows the answer ?	90	
Inversion Without Do	Knows he the answer ?	03	
Tense	Did he know the answer ?	10	56/256

2. The children can ride a bicycle.

St type of error	example	No.	%
Be/preposed redundant	Are the children can ride ? Were the children can ride ? Is/w as the children can ride ?	08	
Do redundant	Do(es) the children can ride ? Did the children can ride ?	27	

Tense	<i>Could</i> the children ride ?	34	
Word order	<i>Can</i> ride the children ?	18	34/309

### 3 The teacher has been looking at their notebooks.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Word-order	Has been the teacher looking at . Have been the teacher looking at . ?	97	
Omission of Been /verbal form	Has the teacher looked at ? Has the teacher looking at ? Has the teacher look at ?	17	
Verbal form	Has the teacher being look at ?	12	
Do redundant	Did the teacher has/have been looking at ? Does the teacher has/have been looking at ?	67	
Be redundant	Is/was the teacher has been looking at ?	05	118/114

### 4. The weather was terrible.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Tense	Is the weather terrible ?	12	
Be redundant	Is the weather was terrible? ?	03	
Do redundant	Did the weather was terrible ? Does the weather was terrible ?	47	
Verbal form	was the weather terribled ?	03	86/279

### 5. They have never gone to a restaurant.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Verbal form /Tense	Have they never go to ..... ? Have they never went to... ? Have they never been gone.. ? Had they never go/went to.. ?	27	

Do redundant	Did/do they have never gone. ?	64	
Be redundant	Are/were they have never gone. ?	04	
Word order	Have never they gone to. ?	48	100/187

**6. They are constantly talking in class.**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Verbal form	Are they constantly talk.... ? Are they constantly talked... ?	09	
Tense	Were they constantly talking.. ?	02	
Do replacing Be	Did/do they constantly talking.. ?	08	111/300

**7. The girl knew many language**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Be replacing Do	Is the girl knew many.. ? Is the girl know many.. ? Was the girl know/knew many.. ?	12	
Verbalform +	Did the girl knew.. ?	54	
Tense +	Does the girl knew.. ?	17	
Concord	Does/did the girl knows.. ?	27	
Tense	Does the girl know... ?	23	
Inversion without Do	Knew the girl many... ?	07	73/227

**8. The house is almost built.**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Be redundant	Is the house is almost built.. ?	03	
Do redundant	Do (es)did the house is... ?	30	
Do replacing Be	Do(es) did the house almost built ?	09	

Verbal form	Is the house almost build.. ?	10	92/286
-------------	-------------------------------	----	--------

**9. Her mother could have made a mistake.**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Word-order	Could have her mother made.. ? Have could her mother made.. ?	24	
Verbal form	Could her mother had/has made/ make.. ?	15	
Word-order/ Verbal form	Have/has her mother could make/ made.. ?	11	
Deletion/ Verbal form	Could her mother have a mistake ? Could her mother make..... ? Could her mother made..... ?	20	
Tense	Can her mother have made... ?	04	
Do redundant	Did/does her mother could have made... ?	23	
Be redundant	Is/was her mother could have made... ?	0	97/236

**10. Jinho was eating an apple when they came.**

Type of error	St example	No.	%
Do redundant	Did/does jinho was eating... ?	42	
Do replacing	Be Did/does Jinho eating... ?	09	
Verbal form	Was Jinho eat(s) an apple... ?	13	
Tense	Is Jinho eating an apple when they came... ?	06	139/221

**4) 자료의 평가**

1. He knows the answer.

→Does he know the answer ?

A. Be replacing Do :

긍정문의 의문문화에서 주어동사의 어순이 바뀐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형 조동사 Do나 be의 용도를 구별하지 못함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echa-



nical over-drilling이 부정적 결과를 빚었다고 본다.

B. Verbal form/Concord;

Does he knows... 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He, she가 3인칭 단수여서 동사의 현재형 어미에 S를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 over-generalization로 나타나고 따라서 그기에 집착하다 보니 시제의 일치성을 놓친 유인이 됐다고 본다.

C. Inversion Without Do.

He knows the answer.

~~He knows the answer?~~  
\* Knows He the answer ?

영어 의문문의 구조적 설명에서 초기에 over-emphasized된 현상으로 보인다. 언어학자들은 이 경우 부주의나 시험의 중압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학습자의 무지나 착각으로 나타난 오류라고 여겨진다.

2. The Children Can ride bicycle.

→Can the Children ride a bicycle ?

A. Be preposed/redundant.

맹목적 Drill에 의거 의문문의 구조는 Be.가 preposed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심화 즉 Chronological factor에 오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Be를 앞세워도 Communication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Misconception에 근거한 error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Can+ride : modal+v 라는 것을 의식 못하면서 왔다고 본다.

B. Do redundant.

Do가 Non-Couplar의 의문문에 쓰인다는 점을 망각했다는 점과 Children을 단수형태의 주어로 받아들여 Does를 썼다고 본다. C.의 경우 Can이 나와야 할텐데 Could는 Carelessness에 의한 것이거나 Could가 더 완곡한 표현이 된다고 믿은 나머지 시제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D. Word-order.

긍정문에서 일반적으로 modal+V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Can+ride the children과 같은 구조의 오류를 낳았다고 본다.

3. The teacher has been looking at their notebooks.

→Has the teacher been looking at their notebooks ?

A. Word-order.

일반적인 Context에서 has been의 연속을 많이 접한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has been을 조합한 Verbal Collocation이 오류의 근원이라 여겨진다.

B.에서 been의 deletion은 역시 위와 같이 일반 Context에서 been이 없는 것을 또한 자주 접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D, E.에서 Do and Be redundant는 has/have been의 format에서 has나 have를 빼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느낀 나머지 Do를 preposed한 Competence의 결함으로 보이며, 완료형의 무지 내지는 현재 진행형과의 착각에서 Be redundant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The Weather was terrible.

→Was theh Weather terrible ?

A. Tense. B. Be redundant C. Do redundant.

본 항목의 A의 경우, systematic stage에 들어선 학습자가 deviant Question을 표출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오류라 여겨진다.

B와 C의 경우, Aux-Verb가 없는 Context에서는 그 의문문이 writing에서 보다는 Speech에서 더 많이 Be와 Do의 잉여성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처럼 보인다. \* Is this is the powder ? Did the weather was terrible ?<sup>11)</sup>

특히 A의 경우는 씌어졌을 때 보다 말할 때 현재를 쓰서 말에 뛰어 들 경우를 상정해 보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며 잉여성의 문제는 일반 context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학습자의 misconception에 의한 오류로 보인다.

5. They have never gone to a restaurant.

→Have they never gone to a restaurant ?

A. Verbal form/Tense

Have + p. p의 부정인 Have + never + p. p의 인지로 Have + subject + never의 분리까지는 가능하다고 인식했으나 시제를 고려치 않았던 오류에 든다.

B. Do redundant.

일반적인 Context에서 they have two cars→Do they have two cars? 가 가능함으로 Do they have never gone to a restaurant도 가능하다고 인식한 유추현상으로 판단된다.

D. word-order.

Have + never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Context의 mechanical over-drilling에서 온 오류로 보인다. 다만 ad: Never의 강조점이 Have에 있음이 아니라 gone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They are Constantly talking in class.

→Are they Constantly talking in class ?

C. Do replacing Be.

앞서의 Tabulation에서 \* Did the weather Was terrible? 처럼 Be가 Do로 대체된 현상을 보았다. 이 점 외에 본 항목에서는 Be + v + ing를 present로 착각한 소수가 있었으나 Question화에 따른 현저한 이탈현상은 없었다.

7. The girl knew many languages.

→Did the girl know many languages ?

A. Be replacing Do.

11) "Menyuk Poula. Sentences children Use M. I. T Press, 1969. 11. (Lewis MUKATTASH employed. ELT. January 1980. p.138).

The girl is...→ she is...→ Is she...로 받아들인 오류로 보인다.

B. Verbal form+Tense+Concord

Did the girl knew... ?

Does the girl knew... ?

Does/Did the girl knows... ?

Does the girl know... ?

121/430이 error로 표출했다. 따라서 Do+third person+V를 형성하는 Question formation을 맹렬히 숙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는 tabulation (I)을 제삼 확인하여 준다 하겠는데 약간의 주의로 극복될 수 있는 일탈현상으로 평가된다.

8. The house is almost built.

→Is the house almost built ?

A. Be redundant. B. Do redundant.

A.와 B에서 보면 Be 보다 Do redundant에 의한 오류가 압도적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Do가 Be 보다는 일반적인 Context에서 Question을 framing하는데 더 많이 인식된 나머지 그릇된 Intuition에서 나온 오류로 여겨진다. C에서 Do replacing Be는 Tabulation VI에서 찾을 수 있는 같은 류의 오류형이다.

D. Verbal form : Comprehension process에서

Be+built를 축조되었다는 뜻의 Single format로 보지 않았던 결과 Sentence VI에서 The weather was terrible→ \*Is the weather terrible?의 오류와 관련있는 오류형이다. Is가 preposed 되었음으로 built 대신에 build가 당연하다고 착각한 오류이다.

92/430가 \*The house is almost built?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이 의문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가령 다음에 예시

It's time for the class to end. →It's time for the class to end? 처럼 된 일반 서술문의 상승음조에 의한 의문문화에 영향을 입은 듯하다.

9. Her mother could have made a mistake.

→Could her mother have made a mistake ?

A. word-order

무엇보담도 먼저 이러한 문항이 speech 상에서 사용빈도가 적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여기서 Could+have는 일반적인 Context의 over-generalization으로 보이고 Have+Could는 C.에서 처럼 이외의 structure로, 다만 Have가 Question화에 preposed 될 수 있다는 internalized Competence에 의한 오류로 보인다. B.의 경우 Could는 Can의 과거인 능력의 뜻으로 본 오류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 Could have made의 formation이 가정법 과거완료의 Context에서 찾을 수 있다는 용례의 무지에서 나온 오류라 여겨진다.

B. Verbal form & Do Deletion/Verbal form

Her mother Could have made a mistake.

Could Her mother has/had made a mistake ? 1)

" ( ϕ ) make " ? 2)

" ( ϕ ) made " ? 3)

는 Can을 'ability'의 범주로 본 것 같으며 1)의 경우 (~)파선과 관계없이 Her mother→she→has→past→had로 유추된 듯하며 2)와 3)의 경우는 Can→past→Could로 이미 서술문에 규정되었으므로, 2)와 3)의 (~)파선 부분이 우리말의 기준으로 보아 선택상 지장이 없다거나 혹은 동일시체라고 보아 가볍게 처리한 원인으로 생긴 오류로 보인다. 그리고 E.F.G는 전항과 유사하여 재확인 정도로 평가되나 특히 지속적으로 Do redundant가 갖는 오류에 비추어 Could+have+p.에 Be redundant가 전무함은 조사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10. Jinho was eating an apple when they Came.

→was Jinho eating an apple when they came ?

A. Do redundant & C. Verbal form/Tense

전자의 경우 과거진행형 was+v+ing를 하나의 format로 보아 Do를 Preposed 함으로서 Does/Did Jinho was eating...?의 오류를 빚은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는 was가 be의 P.P라는 점은 일반화가 잘 이뤄졌으나 Jinho가 He라는 생각에서 He에 집착한 나머지 시제를 놓친 연결상의 착각에서 빚은 오류로 판단된다.

### III. 결론

언어교수의 기법상 Question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으로 Question의 framing에 앞서서 교수론적 측면에서 Question의 성격과 전달기능 및 이의 유형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error의 범주와 분석에 대한 의의를 교수기술의 효율성 및 교수현장에서의 운용적 입장에서 원리적 주장을 살피고 필자의 소견을 부기하였다. 비록 한정된 범주이나 논제를 의문문 짓기와 그에 따른 오류를 알자는 것이었으므로 Question 짓기와 error 분석에 따른 언어교육학적 제원리의 섭렵은 필요했다.

요약하면

1) 대화의 입문은 학습자가 묻고 대답하는 경험의 폭에 크게 좌우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작업은 비록 Lab.를 통하지 않더라도 정상 교과과정에서 최소한 망라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May I borrow your pen?—Personal request에서→why did mr. kim run away?—comprehension question로 더 나아가

what is the past tense of the Verb to draw? 와 같은 grammar question에서 General question으로 분류할 수 있는

Have you ever gone skating, mr. kim? 과 같은 보다 확장된

Question—and—Answer를 경험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교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2) error 분석은 언급할 Sources가 다양함으로 addition, omission, substitution, 및 ordering 등에 의한 오류를 주로 분류하였다.

본 표집은 항해, 기관, 박기과 430명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이러한 분석이 민을만한 Competence 의 올바른 표출행위라면 speaking skill을 높이는데 범하기 쉬운 학생들의 오류를 막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Do와 Be의 대치로 인한 오류가 현저하였다. No. 9은 과거와 완료를 뚜렷히 갈라서 쓰지 않은 우리말의 관행과도 관련이 큰 오류가 아닌가 싶다.

다음은 각 항목마다 나타난 오류의 분포도이다.

Sentence No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Total	%
Type of Error												
Do redundant		27	67	47	64			30	23	42	300	
Be redundant		08	05	03	04			03	00		23	
Do replacing BE						08		09		09	26	
BE replacing Do	15						12				27	
Verbal form	90		(29)	03	(27)	09	54	10	15	13	194	
Tense	10	34		12		02	30		04	06	154	
Word order		18	97		48					24	187	
Deletion									20		20	
Inversion without Do	03						09				10	
Concord							29				27	
exceptions	56/256	34/309	118/114	86/279	100/187	111/300	73/227	92/286	108/236	139/221	2415	
Total	118	87	198	65	142	19	130	52	86	70	968	
%												

### references

TM Risk :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eaching ; American Book Company. New york., 1941.  
 Paulston/Bruder : Teaching English as a 2nd Language ; Winthrop Pub. Cambridge Mass., 1976.  
 Widowson :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 Oxford Univ. Press, London., 1979.  
 Quirk/Greenbaum :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 Longmans London., 1973.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forum ; No.2, January., 1980.No 3. July., 1981.  
 W.F. Mackey : Language Teaching Analysis ; Longmans London., 1965.  
 Rivers :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H.D. Brown :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 Prentice-Hall, Inc , Englewood cliffs N.J., 1980.

